

전통적인 카자흐민족의 죽음이해에 대한 선교적 접근
-장례문화와 그 관습들을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II. 카자흐민족의 종교혼합주의 양상

III. 카자흐민족의 장례문화와 의미

IV. 카자흐민족의 죽음이해와 선교적 접근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카자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장례식은 종종 무슬림들과의 갈등의 계기가 된다. 그것은 전통적인 카자흐민족의 장례의식의 요소들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서 오는 부조화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카자흐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적절한 성경적 안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전통적인 카자흐유목민의 죽음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경의 진리로 조명함으로써 선교를 위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이슬람의 전래 이전부터 천신사상, 조상신 숭배, 성인숭배 등의 토착 민간신앙이 실천되고 있었다. 이 지역에 전파된 수피즘 이슬람은 토착 민간신앙의 계의나 사상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이슬람의 한 요소로 수용하였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유목민들의 삶의 환경으로 인해 이슬람은 전래 초기에 카자흐인들에게 깊숙이 침투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자흐인들은 점점 이슬람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전통종교와 이슬람이 혼합된 독특한 신앙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¹⁾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카자흐민족의 종교적 실천에는 이슬람의 사상과 전통 민간신앙의 요소가 어우러져 그 내용을 구성하는 종교혼합주의(Syncretism)의 양상이 나타난다. 카자흐민족의 종교적 삶에 있어 주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인 죽음에 대한 이해 역시 혼합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전통적인 카자흐유목민의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들은 그들의 장례문화와 관습들에서 엿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카자흐민족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선교의 방안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II. 카자흐민족의 종교혼합주의 양상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8세기 중반 무렵부터였다. 이슬람의 유입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통 토착종교에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외래 종교인 이슬람은 기존의 민간신앙의 토양 위에 일종의 ‘문화’의 형식을 취하면서 민중의 생활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²⁾ 이슬람 수피즘은 기존의 토착 종교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 관례와 의식들을 수용하였다. 그 결과 혼합주의적 종교 관행은 1,4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중앙아시아인들의 종교적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일반적으로 민속 이슬람이라고 불리는 종교혼합주의는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종교적 특징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한다. 이런 현상은 중앙아시아 권의 전통적

1) 이성수,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전통문화에 끼친 영향: 중앙아시아 토속신앙과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지중해 지역연구』, 제9권 제1호 (2007), p. 128.

2) 오원교, “중앙아시아의 민족적, 지역적 소통과 상생의 토대로서 ‘생활 이슬람,’” 『아시아연구』, 제13권 제3호, (2010), p. 143.

인 카자흐유목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수피즘 이슬람은 그 특유의 수용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카자흐민족의 토착 민간신앙들과 습합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교와 문화의 총체로서 카자흐인들의 일상에서 실천되어 오고 있다. 종교혼합주의는 오늘날 카자흐민족의 중요한 종교적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카자흐민족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종교혼합주의의 양상은 조상신 숭배(аруаққа табыну)의 전통에서 나타난다. 조상신 숭배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단하게 실천되어 오는 카자흐민족의 대표적인 종교적 실천 중의 하나이다. 조상신 숭배의 근원은 천신사상의 영혼불멸사상이며,³⁾ 카자흐민족 가운데 공동체를 위해 공헌한 조상의 혼령은 사후 ‘아루악’이 되어 후손의 수호신이자 복의 수여자로서 보호와 복락을 가져다준다는 신념에 기초한다.⁴⁾ 경전 중심의 정통 이슬람의 영향으로 현대 카자흐인들 가운데 조상신 숭배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루악’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아루악’의 보호와 음덕에 대한 카자흐인들의 믿음은 여전하다. 후대에 민간신앙의 ‘아루악’은 이슬람의 성인 제도 안으로 흡수되어 숭배되었다. 이런 현상은 이슬람 사원에서 실천되는 조상의 혼령을 위한 기도나 ‘마자르’(мазар, 공동묘지)의 ‘기도실’(Намаз оқу бөмесі)에서 물라가 참배객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루악’과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⁵⁾ 조상신 숭배는 카자흐민족의 종교혼합주의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 중의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카자흐유목민은 민족의 통치자(хан), 영웅(батыр), 시인(акын), 샤먼(бақсы) 등의 유명한 인물들을 성인으로 간주하고 숭배하는 전통을 간직해왔는데, 이것이 카자흐인들 가운데 성인숭배(әулеге табыну)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후대에 이 전통은 이슬람 수피즘의 제도권으로 흡수되었으며, 성인들의 금욕적이고 헌신적 삶은 후대 사람들의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⁶⁾ 샤머니즘적 성인숭배는 경전 중심의 이슬람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카자흐 대중의 일상에서 중요한 종교 신앙의 한 요소로서 실천되어 왔다. 성인들의 거처로 알려진 동굴이나 암혈 등은 신성한 장소로 간주되어 숭배의 대상이 된다. 특별히 성인들의 시신이 안치된 ‘영묘’(кесене)는 제2의 메카라 불릴 정도로 신성한 장소로 간주된다.⁷⁾ 카자흐인들은 ‘영묘’에서 종교 행위를 하거나 근처 나뭇가지에 천 조각을 묶어 성인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개인의 소원을 아뢴다. 영묘순례는 오늘날에도 카자흐인들 가운데 널리 실천되고 있는 종교 관행 중의 하나이다.

카자흐민족의 종교혼합주의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샤머니즘(бақсылық)이다. 샤먼은 무속의식을 주도하며, 자신의 영적·신적 존재들의 능력을 빌어 치병, 미래 예견, 그리고 잃은 물건을 찾는 기능을 수행한다. 무속의식에는 유일신 알라와 샤머니즘의 신적·영적 존재들의 이름이 동시에 불리며, 샤먼은 ‘코버즈’(қобыз, 카자흐민족의 전통

3) Р. Әлмұқанова, *Қазақ фольклорындағы антикалық сарындар* (Алматы: Арыс бас-пасы, 2009), p. 147.

4) Акеділ Тойшаңұлы, “АРУАҚ,” *Абай-ақпарат*, <http://www.abai.kz/post/11488> (검색일: 2019년 12월 20일).

5) 연구자가 2017년 7월 11일 알마티 주의 알메렉 시골에 위치한 ‘알메렉 아타의 우물’가에 위치한 공동묘지의 사원에서 물라가 참배객들의 조상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하였고, 이에 대해 물라 미으름잔과 인터뷰하였다.

6) 이성수, 앞의 글, p. 138.

7) 카자흐스탄의 남부 도시 투르케스탄(Turkestan)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최초의 투르크 수피 종단의 창시자 코자 아흐멧 야사위(Khoja Akhmet Yassawy)와 카자흐인들의 고대의 정착지 오토라르(Otrar)에 위치한 야사위의 스승인 성자 아리스탄 바브(Аристан-баб)의 무덤은 대표적이다. 카자흐 무슬림들은 메카를 순례 할 수 없을 경우 성인들의 영묘를 순례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악기)의 운율을 타고 황홀경에 몰입하여 ‘아루악’과 ‘아올레-암비에’(ауле-әмбиелер, 이슬람 성인들의 혼령)들과 신접(神接)하여 병을 치료한다.⁸⁾ 샤머니즘과 이슬람의 영적 존재들과의 신접 현상은 양자의 종교적 혼합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슬람은 고대로부터 카자흐민족들의 일상에서 실천되어오던 샤머니즘의 관습을 수용하여 포교에 활용함으로써 양자는 상호 혼합되어 자연스럽게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공존하게 되었다.⁹⁾ 카자흐민족의 샤머니즘에서 고유한 영적 존재를 ‘주’(Ие)라 칭하지만 후대의 이슬람의 영적 존재들인 ‘진’(жын), ‘페르’(пері), ‘사이탄’(сай тан) 등의 명칭들과 혼용되어 불리어지게 된 것이다.¹⁰⁾ 즉 토착 민간신앙과 이슬람의 신적·영적 존재들이 습합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혼용되어 새로운 형태의 종교 관행으로 형성되었다.¹¹⁾ 이러한 현상은 샤머니즘에 나타나는 카자흐민족의 종교적 특징인 종교혼합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III. 전통 카자흐민족의 장례의식과 의미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민간신앙과 이슬람의 종교혼합주의는 카자흐민족의 종교적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교혼합주의의 양상은 카자흐인들의 장례의식에도 나타난다. 장례의식은 고인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Фәниден бақиға) 보내는 통과 의례의 마지막 단계로 카자흐민족의 죽음에 대한 신념체계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카자흐민족의 전통적인 장례절차와 그 관습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임종 직전부터 임종까지의 관습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다음 세상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신앙고백’(Иман ай ту)¹²⁾을 함으로써 생전의 악행이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¹³⁾ 당사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친족 중의 한 사람이 환자의 귀에 속삭이며 대신 ‘신앙고백’을 한다. 그리고 맛을 낸 물을 먹이는데,¹⁴⁾ 이것은 환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만약 임종 직전에 물을 주지 않으면 환자가 목이 말라 사탄이 주는 물을 마시으로써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물을 마시고 죽으면 호상으로 간주된다.¹⁵⁾ 환자의 병환이 깊어 회복

8) Абылқасымов Болатжан, *Телқоңыр* (Алматы: Атамұра, 1993), p. 109; Каскабасов А. Сей іт, *Қазакская волшебная сказка* (Алма-Ата: Өнер, 1972), p. 122.

9) Халел Досмухамедов, *Аламан* (Алматы: Арыс, 1991), p. 25.

10) Ә. Төлеубаев, “Қазақтағы бақсылық,” С. Е. Әжіғали, *ҚАЗАҚ ХАЛҚЫНЫҢ ДӘСТҮРЛЕРІ МЕН Ә-ДЕТ-ҒҰРЫПТАРЫ 1-ші том* (Алматы: Жазушы, 2005), p. 295.

11) *Ibid.*

12) 이슬람에서 ‘신앙’을 ‘이만’(Иман)이라 하는데, 이것은 알라, 천사, 꾸란과 그 외 책들, 선지자, 마지막 날, 운명, 그리고 선과 악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Дәурхан Жәлиұлы Ай даров, *Діл және дәстүр* (Алматы: Дай к-Пресс, 2010), p. 120.

13) 무슬림들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로써 ‘신앙고백’을 한다. 즉 “나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자이다’라는 것을 증언한다”고 고백한다. Amila Buturovic, *Carved in Stone, Etched in Memory: Death, Tomstones and Commemoration in Bosnian Islam since c. 1500* (New York: Routledge, 2016), p. 35.

14) 이 물을 ‘дем су’(Дем су)라 하며, 이 물을 환자에게 마시우는 의식을 ‘이만수 마시우기’(Имансу ішкізу, 믿음의 물 마시우기) 의식이라 한다.

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 사후를 부탁하고, 사람들 사이에 소원했던 일에 대해 서로 용서를 빌며, 시신을 어디에, 어떻게 매장할 것인지를 위탁하는 등의 ‘작별인사’(Арыздасу)를 한다. 이 때 물라나 책임 있는 친척의 입회하에 ‘유언’(Өсиет)을 하는데, 이 유언과 부탁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¹⁶⁾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말도 하고 거동할 수 있으면¹⁷⁾ ‘아타우케레’(Атаукере)라는 일종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인다.¹⁸⁾ 이 관행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심을 고양하고 임종 직전의 사람에게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도록 해준다는 신념을 담고 있다.¹⁹⁾ ‘영혼이 떠나면’(Жан үзу) ‘이만수’(Имансу, 믿음의 물)를 먹인 사람이 고인의 눈을 감기고, 얼굴을 덮고, 손과 발을 엉덩이 쪽으로 바르게 펴고, 두 발바닥을 흰 천으로 묶고, 시신을 바르게 눕힌 후 장례 절차를 의논한다.

2. 임종 후 매장까지의 관습

고인의 사망 직후에 ‘부고’를 전하는데, 부고는 전달자가 직접 전하는 ‘장례 부고’(Каралы хабар)와 제 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에스트르투’(Естірту)²⁰⁾의 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²¹⁾ 카자흐인들은 고인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무덤에 ‘한 줌의 흙을 뿌리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을 사람의 도리로 여기므로²²⁾ 부고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조문을 한다. 고인의 혈육이나 친척들은 장례비용을 서로 부담함으로써 유족의 짐을 덜어 주며²³⁾ 고인의 혼령에 대한 공경과 만족을 도모한다. 고인의 친척들이 상가에 다갈 올 때(남자들은 앞에 서고 여자들은 뒤에 따른다) 사람 목소리가 들릴만한 거리에 서서 ‘애도하기’(көңіл ай ту) 관습을 행한다.²⁴⁾ 조문객들이 모일 무렵 고인의 친척들이 고기와 빵이 담긴 소쿠리를 고인의 머리 위로 돌린 후 손님들에게 맛을 보게 한다. 이 관습은 고인의 혼령이 천국에 가기를 염원하거나 조상과 그 혼령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쳐지는 제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

15) А. М. Балаубаева-Голяховская, “Ақмола гулберниясы казактарының жерлеу салты,” Әжіғали, 앞의 책, p. 291.

16) Ай ыш Нүсіпоқасұлы және Әкімбай Жапарұлы, *Ағаш бесіктен жер бесікке дейін, Бата-тілектер, Той-мерекелер, Ажал-өлім туралы*, бесінші кітап (Алматы: Өнер баспасы, 2011), p. 55.

17) 이것을 ‘산책’(бой жазу)이라 한다.

18) 이 의식을 ‘아타우케레 먹이기’(Атаукере ішкізу)라고 한다. 학자들 가운데 ‘아타우케레 먹이기’와 ‘이만수 먹이기’ 관습을 천신사상의 잔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Нұрсан Әлібай, “Қазақтың өлікті жөнелтуге ба-й ланысты жосынжоралғыларының этномәдени проекциясы,” *Известия*, сер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1, Алматы (1994), p. 39.

19) Ай ыш және Әкімбай, *op. cit.*, p. 57.

20) 부고(Естірту-Хабарлау)를 전할 때 고인의 친척들에게 직접 전하지 않고 마을의 연장자들 중의 한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21) Ай ыш және Әкімбай, *op. cit.*, p. 63.

22) 이 관습을 ‘조문하기’(Өлімге бару)라 한다.

23) 고인의 형제, 친척, 친구, 마을 사람들이 상가에 올 때 가족이나 곡물 등을 가져와 장례를 치른다. 이것은 일종의 부의금으로, 이 관습을 ‘바타 오쿠’(бага оку)라 한다.

24) ‘애도하기’(көңіл ай ту)는 고인이 어른이면 ‘나의 과수꾼이여!’(қормалым), ‘나의 가장이여!’(бас ием), ‘나의 보호자여!’(қорғаушым)라고 소리 내어 애도한다. 중년이면 ‘나의 죽마고우여!’(замандасым), ‘나의 친구여!’(жолдасым)라고 하고, 청소년이면 ‘나의 병아리아!’(балапаным), ‘내 어린 망아지야!’(құлыншым)라며 소리 지른다. 애도할 때 남자들은 마당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곡하고, 여자들은 별도의 집에 모여 통곡한다. 조문객들은 곡하는 사람들에게 ‘고인을 불쌍히 여기 주시기를,’ ‘죽지 않는 사람은 없고 부러지지 않는 쇠는 없다,’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영혼이 천국에 가기를’ 등등의 말로 애도를 표하며 위로한다. Ә. Диваев, “Ертедегі казактардың жерлеу дәстүрлері,” Әжіғали, *op. cit.*, p. 273.

종의 샤머니즘의 관행에 해당한다.

임종 직후 평소 고인이 사용하던 창끝에 검은 깃발을 매달아 상(喪)을 당한 것을 알리고,²⁵⁾ 고인의 자녀들과 친척들은 손에 지팡이를 잡고 통곡하고, 고인의 아내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어깨 뒤로 늘어뜨리고²⁶⁾ 손뚱으로 얼굴을 긁어 피를 흘리면서 고인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곡조를 실어 다음과 같이 ‘애곡’한다.²⁷⁾

Қай ран да менің қосағым ай ,	가여워라 내 남편이여,
Кеттің бе тастап алысқа.	버려두고 떠났소, 저 멀리.
Тапсырдың кімге сордыңды?	당신의 가련한 자를 누구에게 남기고 떠났단 말ियो?
Артыңда қалған қос жетім,	당신 뒤에 남은 두 고아들,
Оларды кімге тапсырдың?	이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떠나가셨나요?
Бетінен, Алла, жарылқа.	알라여, 그들을 축복하소서.
Ей -ей -ей !	아, 아, 아!
Қу күнім-ай !	이 알꺃은 날이여!

애곡하기를 멈춘 후에 고인의 아내나 딸들, 그리고 며느리들이 주저앉아 고인의 생전의 선행과 존경할 점들을 기억하며 삶의 덧없음과 죽음의 무정함을 구슬픈 곡조로 표현하는 ‘애도가’를 부른다.²⁸⁾

Ақ сұңқар ұшты ұядан,	백송고리(흰 매)가 날아갔네, 둥지에서,
Қол жетпей тін қиядан.	손닿지 않을 저 언덕 너머로.
Қанаты бүтін сұңқар жоқ,	완전한 날개 가진 매가 없고,
Тұяғы бүтін тұлпар жоқ.	완전한 굽을 가진 군마도 없도다.
Өлместі тәнірі жаратпай ды,	신은 죽지 않는 존재를 만들지 않으시니,
Топырағы торқа болсын!	물힌 땅에서 고이 잠드소서!
Қалғанға өмір берсін!	후손들의 생명을 길게 하소서!
Өлгенің соңшан өлмек жоқ,	네 죽은 이를 따라 죽을 수 없고,
Өлген қай тып келмек жоқ.	죽은 이는 다시 돌아 올 수 없도다.

조문객들은 울며 비통에 잠겨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울음을 그치게 한다.²⁹⁾ 임종 후

25) 이 관습을 ‘검은 깃발 달기’(Туды 또는 Қараны тұрғызу)라 하는데, 상가지집 왼쪽 모퉁이에서 밖으로 향하여 긴 창을 꽂아 상을 당한 것을 알린다. 창끝에 천을 묶어 두는데, 고인이 젊으면 붉은 색, 중년이면 한쪽은 검은 색, 한 쪽은 붉은 색, 노인이면 흰 수건을 묶어 고인의 나이를 알 수 있게 한다. 고인의 유품들은 때로 일 년 내내 그 자리에 두기도 한다. 임종 후 1주년 제의를 행할 때까지 애곡을 하고 깃발을 달아놓는다. 이 의식은 사람들에게 후한 음식을 준다는 것(ас беру)을 알리고, 나그네들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Ай ыш және Әкімбай, *op. cit.*, p. 95.

26) 이 관습을 ‘머리 풀기’(Тұлдау салты)라 하며, 고인을 잃은 슬픔과 비통의 마음을 표현한다.

27) ‘애곡하기’(Жоктау ай ту)는 고인의 좋은 점, 형제, 친척, 조국에 공헌한 점들, 그리고 자비와 공훈, 본이 되는 것들을 내용으로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비탄시의 형식을 취한다. ‘애곡하기’는 노래 전문가나 고인의 아내 또는 가까운 친척 중에서 수행한다. А. М. Балаубаева Гояховская, “Ақмола губерниясы қазақтарын бың жерлеу салты,” С. Е. Әжіғали құраст., *Қазақ халқының дәстүрлерімен әдет-ғұрыптары, Дүниеге келгеннен өмірден озғанға дейін*, 2-том (Алматы: Арыс баспасы, 2006), p. 291.

28) 이것을 ‘애도가’(Дауыс ай ту) 관습이라 한다. Қалиев С., Оразаев М., және Смай ылова, *Қазақ халқының салт-дәстүрлері* (Алматы: Рауан, 1994), p. 189.

29) 이것을 ‘울음 그치기’(Токтау ай ту)라 한다. 이 관습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례하거나 버릇없거나’ 또는 ‘무식한’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심지어 고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규칙에 따라³⁰⁾ 시신을 깨끗한 물로 씻어³¹⁾ 물기를 제거한 후 흰 색의 수의용 천(Кебін)에 싸서³²⁾ 장례용 ‘키즈 위’³³⁾(Күй із үй і)에 안치한다.³⁴⁾ 카자흐민족은 사람이 사망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광활한 광야의 먼 거리에서 오는 조문객들을 기다리는 동안 시신의 부패나 해충들로부터의 손상을 막기 위해 시신을 보관하고 지킨다.³⁵⁾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고인의 생전에 갚지 않은 채무나 죄를 사하는 ‘피디야 주기’(Пидия беру) 관습을 수행한 후³⁶⁾ 몰라가 고인을 위해 기도한다.³⁷⁾ 이것은 고인이 무슬림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공적으로 증언하고 그의 영혼이 천국에 있기를 염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사람이 사망하면 ‘부고 전하기’와 ‘무덤 파기’³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무덤을 만드는 일은 마을 사람들이 수행한다.³⁹⁾ ‘무덤 파기’가 완료되면 시신의 다리가 앞쪽으로 향

30) 시신을 씻는 사람들은 고인의 가문의 사람이나 친척들, 그리고 고인의 생전의 유언에 따라 정해진다. 고인의 시신을 맨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장갑을 끼거나 헝겊을 묶고 씻는다. 이 의식은 일반적으로 5명의 사람이 수행하며, 물이 없을 경우 깨끗한 흙이나 모래로 닦는다. 먼저 하체와 상체를 세 번 이상 씻고, 입과 코는 손으로 닦는다. 시신을 씻은 후에 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우신에서 시작하여 좌신으로 씻은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이 의식을 ‘시신 씻기’(Арулау 또는 Сүй екке түсу)라 한다.

31) 이 의식을 ‘시신 씻기’(Дәрет суын алу) 또는 ‘자비의 물로 씻기’(Мей ірім су)라고도 한다. С. Е. Әжіғали және Н. Бай ғатова, “Жетісу қазақтарының салты-дәстүрлері мен әдет-ғұрыптары,” С. Е. Әжіғали құраст., *Қазақ халқының дәстүрлері мен әдет-ғұрыптары*, p. 189.

32) 이 의식을 ‘시신 싸기’(Кебін пішу) 관습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고인이 젊은 시절 사용한 가름막을 사용하거나 비단 천으로 만든 수의를 준비한다. 이 수의로 고인의 얼굴을 가리고, 남자는 세 겹, 여자는 다섯 겹, 미성년자는 두 겹으로 감싼다. 수의는 안에서 밖으로 향하여 머리와 팔, 그리고 다리를 묶는다. 수의용 천이 없을 경우에는 깨끗한 천으로 싸서 매장하고, 시신을 씻지 않거나 ‘자나자’(жаназа, 고인이 천국으로 가기를 비는 기도)를 하지 않은 채 매장하지 않는다.

33) 양털로 만든 카자흐 유목민들의 이동용 천막집

34) 시신을 안치할 때 ‘키즈 위’의 문 우측에 시신을 두고 머리를 북쪽으로, 다리를 남쪽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얼굴을 메카 쪽으로 돌려놓고, 바닥에는 자리를 깔고, 등을 곧게 펴 눕히고, 얼굴은 가볍고 얇은 천으로 덮고, 머리는 흰 수의로 덮고 몸은 부드러운 천으로 둘러 싼 후 고인이 젊은 시절에 사용한 양탄자로 가려 덮는다. 이것을 ‘시신 안치하기’(Оң босаға салу 또는 Оң босаға жатқызу) 의식이라 한다.

35) 이것을 ‘시신 지키기’(Сүй ек күзету) 관습으로 불려진다.

36) 피디야는 암소, 양 등의 가축이나 15~20킬로그램의 보리나 밀 등의 곡물이다. ‘피디야’는 과부와 고아, 빈곤한 자, 환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등에게 주어지고, 그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없으면 몰라에게 주어진다. 고인의 죄에 대해서는 생전에 ‘베스 нама즈’(하루 다섯 번의 기도)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지 않은 것을 사함받기 위한 보상으로 주어진다. 고인의 머리 쪽에 고인의 자녀나 친척이 앉고, 반대편에 몰라가 꾸란을 들고 앉는다. 청소년기(13세~15세 사이) 이후의 고인의 죄에 대해, 고인의 친척이 시신에 꾸란을 놓고 몰라에게 “당신이 아버지 또는 형님 또는 그 외 친척의 죄를 담당하겠느냐?” 라고 물으면 몰라는 꾸란을 취하면서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대답한다. 이 관습을 수행함으로써 고인의 죄가 사해진다.

Ы. Алтынсарин, “Орынбор ведомствосы қазақтарының өлген адамды Жерлеу және оған Ас беру дәстүрінің очеркі,” Әжіғали құраст., *Қазақ халқының дәстүрлері мен әдет-ғұрыптары*, p. 254.

37) 이 관습을 ‘자나자 нама즈’(Жаназа намазы)한다.

38) 무덤은 마을 외곽의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는데, 시신이 흙에 덮이지 않도록 무덤의 입구를 얇은 가지로 가려두고, 한 쪽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깊이로 판다(Кабір қазу). 무덤 위에 세우는 비석은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길게 만든다. 남자의 무덤에는 창, 여자의 무덤에는 천막용 기둥을 세우고, 어린이 무덤에는 요람을 둔다. 무덤들은 무인광야 지경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39) 카자흐민족 가운데 5가지의 무덤의 유형이 있다. 첫째, ‘촛불 무덤’(Шам ақым). 이것은 개인 무덤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의 매장을 위한 가문의 묘로 ‘카버르스탄’(қабырстан) 또는 ‘촛불 무덤’(шам көр)이라고도 한다. 둘째, ‘영혼의 묘혈’(Жан ақым). 주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긴 사각형 형태로 된 무덤이다. 길이 2.5미터, 폭 1.8미터, 깊이 2미터로 수직으로 파 내려간다. 셋째, ‘이중 묘혈’(Жарма ақым). 이 형태의 무덤은 흙이 부드럽고 진흙이 있는 땅에 만들어진다. 형태는 ‘영혼의 무덤’과 동일하지만 무덤의 깊이를 1.5미터 정도로 파고, 무덤의 서편 덮개 쪽으로부터 시신을 안치할 수 있을 정도로 0.8미터 정도로 판다. 시신을 안치한 후 입구를 점토 덩어리나 두꺼운 나무판대기로 덮는다. 넷째, ‘수직 묘혈’(Тік ақым). 이 무덤은 산지나 사막, 암석지역에서 이용하는 무덤의 형태로 ‘돌무덤’(тас бей іт) 또는 ‘모래 무덤’(құм бей іт)이라고 한다. 다섯

하게 하여 조문객들 앞으로 옮겨와 안치한다. 이 때 머리는 북쪽으로, 다리는 남쪽 방향을 향하게 한다.⁴⁰⁾ 물라의 기도가 끝난 후 남자들이 시신을 들고 매장지로 향하고 여자들은 상가에 남아 곡한다. 무덤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오고 무덤 외부의 네 사람이 시신을 다리부터 무덤 아래로 내린다. 시신을 무덤에 안치한 후 첫 번째 흙(무덤을 팔 때 뜬 첫 삽의 흙)을 시신의 머리 쪽에, 조문객들이 뿌린 흙을 시신의 주위에 뿌린다.⁴¹⁾ 이어 시신의 세 부위를 묶은 끈을 풀고, 수의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후 시신의 머리는 북쪽으로, 다리는 남쪽을 향하도록 눕힌다. 무덤 안의 사람은 밖으로 나가고 무덤의 입구를 덮는다.⁴²⁾ 예외적으로 전쟁, 박해, 이주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암석 동굴, 절벽, 산등성이, 산골짜기 등의 적절한 장소에 임시로 매장한 후 나중에 이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임시매장 의식’이라고 한다.⁴³⁾ 매장이 끝나면 물라가 고인의 혼령인 ‘아루악’을 알라에게 기원하고 꾸란 구절을 낭독하고 기도함으로써 매장 의식이 끝난다.⁴⁴⁾

3. 매장 이후의 관습들

카자흐민족의 장례절차에는 매장 이후에도 많은 관습들이 실천된다. 장수하고 자손을 많이 본 여성이 사망하면 운구하기 전에 여자들이 바늘, 실, 송곳, 골무 등의 유물을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실-바늘 나누어 주기’(Ине-жіп үлестіру)라 한다.⁴⁵⁾ ‘천 조각 나누어 갖기’(Телім және Тәберек алу) 관습은, 많은 후손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에서 천을 찢어 장사지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 관습을 ‘테베렉 알루’(Тәберек алу)라고도 한다. 이와 달리, 무덤을 덮은 양털, 양탄자, 기타 물건들을 매장한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는 관습을 ‘텔름 알루’(Телім алу)라고 한다. 이 관습들은 사람에게 희망을 품고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후손들에게는 장수하고 모범적 삶의 본을 보이라는 기

재, ‘화덕 무덤’(Ошпақ көр). 이 무덤은 유아나 5세 미만의 아이들을 매장하기 위한 것이다. 무덤의 넓이와 길이, 그리고 깊이는 1미터 정도로 파고 화덕의 입구처럼 분리하여 판다.

Әлижан Тауұлы құрас., *Қазақ салт-дәстүрлері* (Алматы: Балауса баспасы, 2017), pp. 330-331.

40) 이 의식을 ‘시신을 집에서 내어 보내기’(Жаназа шығару)라 한다. 물라는 사람들이 세 번 소리 내어 기도하게 한 후 들것의 앞 쪽 손잡이 가운데에 서서 기도를 시작한다. 기도가 끝난 후 고인의 자녀들 중의 한 명을 불러 “동의하느냐?”라고 묻는다. 자녀는 시신의 다리 쪽에서 세 번 무릎 꿇고 일어나서 “허락합니다”라고 세 번 반복한다. 이것은 상주가 시신을 매장할 것을 허락한다는 표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도 의식이 완전하게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41) 이 관습을 ‘흙 뿌리기’(Топырақ салу)라 한다. 카자흐인들은 고인의 무덤에 한 줌의 흙을 뿌리는 것을 매우 자비로운 일로 여겼다. 노인들은 “아이들보다 먼저 가고 후손들이 내 무덤에 한 줌 흙을 뿌려준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지요?”라며 소원을 말한다. 상주들이 먼저 일곱 번 흙을 뿌린 후에 조문객들이 차례로 던진다. 이 때 흙을 떠는 삽을 손으로 전달하지 않고 땅에 떨어뜨리면 다음 사람이 삽을 주위 흙을 떠 뿌린다. 봉분을 만들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면 물라가 꾸란을 읽고 소원을 빈 후에 매장 의식이 끝난다.

42) 카자흐민족의 ‘매장 관습’(Жерлеу салты)에서 고인이 생전에 부유하거나 영웅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사후 자신의 부를 남긴다면 그의 묘지에 가축의 뼈, 머리, 그리고 빨 등의 제물이 바쳐진다. 이들의 묘지는 경배의 장소가 되고, 고인은 성인의 반열에 서게 된다.

43) 이 관습을 ‘임시 매장’(Аманат кою)이라고 한다. ‘임시매장’ 의식을 치를 때 상주들과 조문객들이 ‘보증한다’(аманат)라고 세 번 맹세한다.

44) 이것을 ‘고인을 위한 꾸란 낭독과 기도하기’(Дұға оқу 또는 Құран оқу) 관습이라고 한다. 이 의식은 두 손을 펴서 모은 채 꾸란을 낭독하고, 마친 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아멘으로 화답한다. 이 ‘꾸란 낭독과 기도하기’ 의식은 인간의 마땅한 의무요 고인에 대한 큰 존경심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카자흐 무슬림들은 평생 묘지 앞을 지날 때에도 남자는 두 손을 펴서 기도하고, 이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후 계속 길을 간다.

45) 이 관습에는 고인이 생전에 이웃이나 친척들에게서 빌린 바늘이나 실 등을 돌려주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저 세상에서도 계속 빛을 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염원과 기원이 담겨있다.

원을 담고 있다.

카자흐 여성들 가운데 70세가 넘으면 ‘복샤’⁴⁶⁾(Бокша)를 준비하여 값비싼 천, 반지, 귀걸이, 팔찌, 은단추, 은세공품, 목도리, 의복 등 값진 물건들을 넣어 두었다가 사망한 후에 몰라가 꾸란을 낭독한 후 고인의 여자 친척들 중의 한 사람이 주머니를 연다. 주머니를 연 여성이 가장 값진 물건을 가지고 나머지는 그 장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다. 이것을 ‘주머니 열기’라 한다. 또 고인이 남긴 ‘유산’(Мұра)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⁴⁷⁾

매장 이후 ‘제사 음식 나누기’(Нәзір-Құзыр өткізу) 제의를 실천하는데, 사망 이후 만 3일 째에 ‘3일제’(үші)를, 만 7일째에 ‘7일제’(жетісі)를, 그리고 40일째에 ‘40일제’(қыркы)를 거행한다.⁴⁸⁾ 고인의 매장 날로부터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에 ‘100일제’(Жүзддік)를 거행한다. 모든 제사에는 송아지나 암소를 잡아 음식을 나누며, 고인의 혼령인 ‘아루악’을 위해 꾸란을 읽고 기도한다.⁴⁹⁾

장례 이후 고인의 유족이나 친척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이 유족들을 초대해 차를 나누거나 양을 잡아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관습을 ‘위로의 차 나누기’(Жұбату шай ын беру)라 한다. 라마단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고인을 위해 꾸란을 읽고 이웃과 친척들을 초청하여 가족을 도살하고,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아루악’에게 바치는 ‘일곱 개의 셸펙’(жеті шелпек, 7개의 빵)을 만들어 냄새를 날려 보낸다. 이 관습을 ‘셸 베투’(Шек беру)라 한다. 이런 관습들은 상을 당하여 슬픔에 잠긴 가족에 대한 위로와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고인의 혼령을 알라에게 의탁하고, 그 덕을 기리며 후손들에게 복을 비는 의미를 가진다. 고인을 매장할 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후에 와서 위로하고 복을 빌고, 고인에 대해 덕담을 하고, 꾸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아루악’을 만족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 관습을 ‘축복 기도’(Бата оқыр)라 한다. 이런 관습들의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의미가 담겨있다. 고인을 매장한 후 실천되는 ‘꾸란 낭독’(Құран оқу)은 ‘축복 기도’와 함께 의무적인 관행이다. 이 관습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루악’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카자흐인들은 고인의 ‘아루악’을 공경하고 자주 기억하며, 무덤에서 제의를 실천하고, 매주 고인의 혼령을 위해 꾸란을 낭독하고 기도하는 의식을 수행한다.⁵⁰⁾

카자흐민족의 장례 후 실천되는 제의 가운데 고인의 1주년 의식인 ‘아스 베투’(Ас беру) 관습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아스 베투’ 의식은 전통적으로 민족의 유명한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장수하다가 죽은 60세 이상의 남자 고인에게 주어졌다. 나중에 이 전통은 대중들에게 확대되어 장례절차의 마지막 의식으로 자리 잡아 고인의 1주년 제의로 치러졌다. 카자흐민족의 전통에 의하면 ‘아스 베투’ 의식은 고인의 아끼는 말을 도살하여 그 고기의 맛을 보는 데서 시작되며, 후손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각종 놀이나 경기를 치르는 등 마을의 잔치로 확대되었다.⁵¹⁾ ‘아스 베투’ 의식이 끝남과 함께 고인의 임종

46) 양털이나 천으로 짜서 만든 주머니 또는 가방.

47) 이 관습을 ‘유산 상속’(Мұра)이라 한다.

48) 이와 같은 카자흐민족의 제의를 ‘제사 음식 나누기’(Нәзір-Құзыр өткізу)라 한다. 40일제는 고인이 남자이면 35, 37, 39일 째, 여자인 경우 35, 37일 째 되는 홀수 날에 거행된다. 모든 제사에는 여자들이 곡을 하며 참석한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한다.

49) Ай ын және Әкімбай, *op. cit.*, p. 90.

50) *Ibid.*, p. 96.

51) Әжіғали құраст., *Қазақ халқының дәстүрлері мен әдет-ғұрыптары*, p. 256.

직후 집안에 걸어 둔 고인의 물건을 치우고, 상을 알리는 창을 부수고,⁵²⁾ 고인의 아내와 딸들은 상복을 벗는다.⁵³⁾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온다. ‘아스 베루’ 의식은 고대로부터 수세기에 걸쳐 카자흐민족의 피 속에 영겨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으로 조화와 번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제의는 한 마을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카자흐민족에 고유한 전통이다. 상을 당한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고인을 추모하며, 카자흐인들 사이의 우호와 일치를 가져오는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IV. 카자흐민족의 죽음이해와 선교적 접근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카자흐민족의 장례문화와 관습에는 사람에 대한 인간미와 사랑 그리고 고인에 대한 공경의 태도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카자흐인들의 이해가 스며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카자흐민족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들의 죽음 이해에 선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무슬림 카자흐민족의 선교에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전통적인 카자흐인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선교의 접근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카자흐민족의 죽음이해

전통적인 카자흐인들은 고인의 혼령을 저 세상으로 잘 떠나보내는 것에 관심을 둔다. 즉 장례의 모든 관습은 망자의 혼령을 흡족하게 하는 데 무게중심이 있다. “죽은 자가 만족 못하면 산 자가 부하지 못한다”⁵⁴⁾는 속담과 같이 카자흐인들은 고인의 혼령을 만족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이유로 상주들과 친척들, 그리고 조문객들은 간절한 마음과 최대한의 정성을 들여 고인을 영원한 ‘저 세상’(бақи)으로 보내는 장례의식을 거행한다. 장례의식 가운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도하기,’ ‘마주보며 곡하기,’ ‘애곡하기’ 관습들은 죽음에서 오는 영원한 이별의 아픔과 인간미,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안고 있다. 매장 이후에 실천되는 ‘제사 음식 나누기’ 제의인 ‘3일제,’ ‘7일제,’ ‘40일제,’ ‘100일제,’ 그리고 ‘1주년제’에는 가축을 도살하고, 촛불을 밝히고, ‘꾸란을 낭송’하고 ‘기도하기’ 의식들을 수행하는데, 이런 제의들에는 죽은 자(‘아루악’)에 대한 산 자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매주 반복되는 ‘첵 베루’ 관습은 ‘첵펙 난(뽕)’을 ‘아루악’에게 바침으로써 조상들이 후손들의 기억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카자흐민족의 장례의 모든 절차에는 이슬람의 사상이 스며있으며 꾸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⁵⁵⁾ 이 가운데 ‘신앙고백,’ ‘자나

52) 이 의식을 ‘깃발 내리기’(Қара жьбу)라고 한다. 사람이 죽었을 때 집에 세운 검은 깃발을 취하여 부수고 불에 태우는 것을 말하는데, 고인의 사후 1주년이 되는 ‘아스 베루’ 의식 후에 행해진다. 깃발을 태운 후 친척 친지, 부인, 자녀, 마을 어른들이 꾸란을 낭송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마지막 애곡을 한다. 슬픔의 해가 지나갔고, 비탄의 세월들이 끝났다는 의미이다.

53) ‘일상으로 돌아가기’(Тұл аудару) 관습은 상을 당한 지 1년이 지나서 사망 1주년 ‘아스 베루’ 의식을 치른 후 집에 걸어놓았던 검은 깃발을 내리고, 부인과 딸들은 상복을 벗고 집안 식구들이 슬픔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의식이다.

54) “Өлі риза болмай, тірі бай ымай ды.” <http://www.kitaphana.kz/ru/downloads/referatu-nakazak-skom/235-madeniettanu/4406-2012-05-24-06-36-10.html> (검색일: 2019년 12월 20일).

55) Әліжан, *op. cit.*, p. 323.

자 нама즈,' '시신 씻기,' '속죄금 주기,' 그리고 '꾸란 낭송과 기도하기' 요소들에는 이슬람의 신앙과 속죄, 정결 의식, 그리고 내세 사상이 녹아있다. 이와 같이 카자흐민족의 장례문화에는 샤머니즘과 이슬람의 사상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아루약'을 공경하고 만족하게 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이슬람은 카자흐 무슬림들의 죽음이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죽음은 삶의 종결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삶의 연속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물질 영역과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전환을 나타낼 뿐이다.⁵⁶⁾ 죽음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며 존재의 소멸이 아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속의 일부이며, 양자의 분리는 실재가 아닌 인간의 인식에 불과할 뿐이다.⁵⁷⁾ 이슬람의 믿음에서, 알라는 이 세상의 삶을 내세 삶의 시험과 준비 장소로 만드셨다.⁵⁸⁾ 내세는 모든 영혼이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곳이다. 그것은 심판의 날에 시작되어 영원히 계속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후 세계를 준비할 한 번의 삶과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이 행한 선과 악에 따라 보상이나 형벌을 받게 된다.⁵⁹⁾ 그러므로 죽음은 알라에게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개개인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준다. 죽은 자들은 '심판의 날'(The Day of Judgment)에 부활하여 그들의 삶을 평가받고 지옥 또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뉠 것이다. 의인은 낙원인 '자나트'(жәннат)로 환영을 받고, 불신자와 행악자는 지옥불인 '자한남'(Жаһаннам)에 처해진다. 그러므로 내세는 알라와 그의 천사들과 책들과 그의 사자들을 믿는 자들과 이생에서 선을 행한 자들을 위해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곳이요,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극형으로 다스려지는 장소이다.

전통적인 카자흐인들의 죽음이해는 이슬람의 영혼불멸사상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나 영원한 망각 또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수명'(Ғұмыр)⁶⁰⁾이 다하여 그 영혼이 인간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옮겨 가는 것이며 영혼은 죽지 않는다.⁶¹⁾ 카자흐민족의 위대한 시인이자 철학자인 아바이(Абай Құнанбай Ұлы)는 영혼불멸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한다.⁶²⁾

Өлсе өлер табиғат, адам өлмес,	자연은 죽어 사라질지라도, 사람은 죽지 않으리,
Ол бірақ қай тып келіп, ой нап-күлмес.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와, 놀고 웃지 않으리.
'Мені' мен 'Менікінің' ай ырылғанын,	'나'와 '나의 것'이 나뉜 것을,
Өлді деп ат қой ыпты өңкей білмес.	죽었다고 이름한들 홀로 누가 알리요.

자연은 장구할지라도 사라져 소멸될 때가 오지만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 '나'(Мен)는 육신을 거처로 하는 영혼과 이성의 결합으로 형성된 영적 존재를 의미하며, 이

56) Colin Turner, *Islam: The Basics* (New York: Routledge, 2006), p. 125.

57) Amila, *op. cit.*, p. 34.

58) Oliver Leaman, eds., *The Qur'an: An Encyclopedia* (New York: Routledge, 2006), p. 27.

59) Juan E. Campo, eds. *Encyclopedia of Islam* (New York: Facts on File. 2009), p. 185.

60)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하면 '수명'(Ғұмыр)이란 사람의 지상 삶의 기간을 의미한다. 카자흐인들은 인간의 운명이 알라에 의해 결정되며, 그 수명의 길고 짧음은 태초에 이마에 새겨졌다고 믿는다. Н. Әлімбаев, Құраст. *Энциклопедия: Қазақтың этнографиялық категориялар, ұғымдар мен атауларының дәстүрлі жүйесі* (Алматы: DPS, 2011), p. 350.

61) Қай рат Жолдыбай Ұлы, "ЖАНАЗА НАМАЗЫ," <http://islam.kz/kk/articles/iman-alippesi/islam-shartary/namaz-oqu/janaza-namazy-628/#gsc.tab=0> (검색일: 2019년 12월 19일).

62) Мырзахметұлы М., *Абай Лұғаты* (Алматы: Өнер-21 ғасыр қоғамдық қоры, 2014), p. 39.

것은 영원하고 죽지 않는다.⁶³⁾ 육신은 영혼과 이성의 좌소(座所)이며, 물질로 이루어진 까닭에 영혼이 떠나면 그 생명이 멈춘다. 흠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흠으로 돌아가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하다.⁶⁴⁾ 육신을 떠난 영혼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대기 장소'(Күту әлемі)라 불리는 무덤에서 거처하게 된다.⁶⁵⁾

전통적인 카자흐인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사후에도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죽음이해에 속한다 할 수 있다.⁶⁶⁾ 이런 관점은 고대로부터 카자흐민족 가운데 존속해온 천신사상에 기초한다. 조상숭배도 천신사상의 영혼불멸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⁶⁷⁾ 카자흐민족의 공동체를 위해 생전에 공을 세우고 헌신한 조상의 혼령은 사후 '아루악'이 되어 후손들의 수호자와 복의 수여자로서 산 자의 곁에 머문다는 믿음에 기초한다.⁶⁸⁾ 카자흐인들에게 '아루악'은 가문의 '수호신'(жебеуші)이며 후손들에게 음덕을 베푸는 존재로 믿어져왔다. 그래서 전통적인 카자흐인들은 곤경에 처할 때나 소원이 있을 때 '아루악'에게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였다.⁶⁹⁾ 그러나 후손들이 '아루악'을 잊거나 공경하여 예를 표하지 않으면 노하여 화를 내리고 불행을 가져온다.⁷⁰⁾ '아루악'을 달래고 흡족하게 하는 길은 다양한 제물로 제사를 지내고, 무덤에 촛불을 밝히고, 망자 사후 40일 동안 불을 켜 두며, 자주 기억하고 꾸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 카자흐인들의 이해에 의하면 저 세상에는 '7층 천'(Ас-панның жеті кабаты)이라는 경이로운 장소가 있는데, 이것을 사후 영혼이 사는 일곱 세상이라 하며, 각 영혼의 거처는 지상 삶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⁷¹⁾ 환자의 눈이 감기고 심장 박동이 멈추고, 손과 발이 차게 되면 그 영혼이 가슴에서 나가 이생에서 저 세상으로 떠났다고 간주된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곤충으로 변하는데, 이것을 '파리 영혼'(Шыбын жан)이라 부른다.⁷²⁾ 사후 사람의 영혼은 입에서 나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에 올라가 시신을 매장할 때까지 거기서 머문다.⁷³⁾ 이와 같은 카자흐인들의 영혼불멸과 죽은 자가 산 자의 곁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간다는 이해는 죽음에서 오는 고통을 경감하려는 하나의 의미 체계로 이해된다.⁷⁴⁾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전통적으로 카자흐유목민에게 있어 죽음은 현재의 상태에서 다음의 상태로의 전환일 뿐이다. 사람은 사후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 영원히 존재하며, 내세

63) *Ibid.*, p. 39.

64) *Ibid.*, p. 40.

65) Қай рат Жолдыбай ұлы, "ЖАНАЗА НАМАЗЫ," <http://islam.kz/kk/articles/iman-alippesi/islam-shartary/namaz-oqu/janaza-namazy-628/#gsc.tab=0> (검색일: 2019년 12월 20일).

66) 이란 · 현은자, "죽음 교육 자료로서의 그림책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신앙과 학문』, 제19권 제4호 (2014), p. 140.

67) Р. Әлмұқанова, *Қазақ фольклорындағы антикалық сарындар* (Алматы: Арыс баспасы, 2009), p. 147.

68) Акеділ Той шанұлы, "АРУАК," *Абай -ақпарат*, <http://www.abai.kz/post/11488> (검색일: 2019년 12월 22일).

69) 전통적인 카자흐인들은 '아루악이 흡족하기를!', '아루악이 지켜주기를!', '아루악이 도와주기를!', '곤경에서 구해주소서!'라고 기도하였다. Ә. Марғұлан, *Ежелгі жыр, аңыздар* (Алматы: Жазушы, 1985), p. 148.

70) Әлмұқанова, *op. cit.*, p. 38.

71) Ә. Мұқашбеков, З. Қаржымбай қызы, К. Қасымқызы, М. Құмарқызы, С. Рауанов және Е. Күлиев, *Жаратушыны әруақтар арқылы тану немесе Ақ ананың тысым дүниелері* (Алматы: Дәуір, 2008), p. 164.

72) Балаубаева-Голяховская, "Ақмола гулберниясы қазақтарының жерлеу салты," *Әжіғали құраст.*, *op. cit.*, p. 291.

73) *Ibid.*,

74) Paul Hiebert, R. Daniel Shaw and Tite Tiéno, *Understanding Folk Religion: A Christian Response to Popular Beliefs and Practices*, 문상철 역, 『민간종교이해』 (서울: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2006), p. 168.

는 현세 삶의 결과에 달려 있다. 특별히 조상의 혼령인 ‘아루악’에 대한 신앙은 카자흐민족의 영혼불멸사상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카자흐민족의 죽음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천신사상과 이슬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영혼불멸사상이 그 근간이라 할 수 있다.

2. 선교적 접근

그렇다면 카자흐민족의 죽음 이해에 대해 선교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서 타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화 판단의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특정한 문화에 접근함에 있어 일방적인 거부나 배척의 태도를 지양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요구된다.⁷⁵⁾ 겸손함은 타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다. 그와 동시에 그 문화의 신념과 가치 등은 성경의 진리로 검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에 대한 비판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한 상황화를 시도할 경우 문화적 또는 신학적 혼합주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⁶⁾ 선교는 언제나 성경적 가치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선교는 ‘성경적’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카자흐민족의 장례문화와 그 관습들에 내포된 몇 가지 논점들을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검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전통적인 카자흐유목민의 죽음이해에는 죽음의 원인이 죄라는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⁷⁷⁾ 죽음은 각종 질병, 부족 간의 전쟁, 사고, 독충 등의 자연적, 사회적 원인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된다. 꾸란은 사람에게 죽음이 불가피한 것이며,⁷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가르치지만,⁷⁹⁾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성경은 죽음이 죄에서 비롯되었으며(창 2:17), 죽음이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곧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또는 파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성경은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적인 법칙을 넘어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롬 5:12). 죽음의 원인에 대한 카자흐민족의 이해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죽음의 원인이 죄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카자흐민족의 영혼불멸사상이 성경의 진리로 검증되어야 할 것을 시사해준다. 카자흐인들의 영혼불멸사상에 의하면, 사자의 혼령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아루악’이 되어 저 세상의 삶을 이어가며, 산 자들과 관계를 가지며, 다른 생명체로 태어날 수 있다. 즉 사람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불멸에 대해 성경은 영혼과 육신의 전 존재의 부활을 말하며,⁸⁰⁾ 영생은 현세에

75) F. E. Johnstone and Selby H., *Anthropology: The Biocultural View*, 權彝九 編, 『現代文化人類學』, (서울: 探究堂, 1994), p. 111.

76) Hiebert, Daniel and Tiéno, 앞의 책, p. 35.

77) Ш. Ш. Уәлиханов, *Қазақтардағы шамандықтың қалдығы*, 4-т (Алматы: Алма-Ата, 1985), 12.

78) Surah 50.19, “And the stupor of death will come in truth; that is what you were trying to escape.” <http://www.perseus.tufts.edu/hopper/text?doc=Perseus%3Atext%3A2002.02.0006%3Asura%3D50%3Averse%3D19> (검색일: 2019년 12월 23일).

79) Al Imran-185, Surah The Family of Imran Verse-185. “Every soul shall taste death, and only on the Day of Judgment will you be paid your full recompense.” <http://en.noblequran.org/quran/surah-al-imran/ayat-185/> (검색일: 2019년 12월 23일).

80) G.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for Study Class*, 나용화 역, 『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서 강해』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2006), pp. 397-398.

서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결과라고 가르친다(롬 6:22, 23 참조). 또 성경은, 불멸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질지라도 악인은 영벌을 위해, 의인은 영생을 위해 부활한다고 분명하게 알려준다.⁸¹⁾ 성경은, 사람의 사후 그 혼령이 스스로 ‘아루악’이 되어 내세의 삶으로 존속한다는 카자흐민족의 이해에 대해, 불멸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수여될 “구속적 선물”이며,⁸²⁾ 궁극적으로 불멸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친다(사 9:6).⁸³⁾ 성경은 전통적인 카자흐민족의 순환론적 영혼불멸사상과는 대조적으로 시작에서 끝장 종말로 나아가는 직선적 세계관을 보여준다.⁸⁴⁾

셋째, 카자흐민족의 장례 관습에 나타나는 속죄 의식의 일종인 ‘피디야 주기’ 관습은 죄 사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디야’ 관습은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고인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으로 고인이 생전에 ‘하루 다섯 번의 기도’(Бес намаз)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라마단 기간에 ‘금식’(Ораза)하지 않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써 일정한 의식을 통하여 가축이나 곡물을 가난한 자들이나 물라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피디야 주기’ 관습이 실천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카자흐인들의 이해에 의하면 남자는 한 살부터 죄인으로 간주된다. 여자 아이들은 9세부터 죄인으로 간주되는데, 그것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9세로 보기 때문이다(이것은 무함마드가 9세의 아이샤와 결혼한 데서 유래되었다). 반면 남자 아이는 13세부터 결혼이 가능하다. 만약 남녀 아이가 이 나이 이전에 죽으면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들을 위해 죄를 씻고 사하는 ‘피디야 주기’ 관습을 실천할 필요가 없다.⁸⁵⁾

‘피디야 주기’ 관습에서 죄는 종교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한정된다는 카자흐민족의 이해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⁸⁶⁾으로 정의한다(요일3:4; 약4:17; 롬3:23, 4:5; 약2:10). 이 정의에 의하면 율법(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의무의 이행만이 아닌 인간 삶의 모든 영역, 곧 종교를 포함한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의무의 외연과 개인의 마음 상태까지도 온전할 것을 요구한다. 또 전통적인 카자흐인들은 사람의 생애에서 죄가 없는 시기와 죄가 있는 시기가 있으며, 그 죄는 물질(피디야)로써 속해질 수 있다고 이해한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완전(sinless perfection)에 이를 수가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롬 3:23, 24).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롬 3:9-20). 성경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죄책이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자연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 원부패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온다고 가르친다.⁸⁷⁾ 이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으로 죽는다. 즉 한 사람의 생애에서 죄인이 아닌 때가 한 번도 없는 것이다. 성경은 죄의 유효성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구원을 제공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

81) Louis Berkhof,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하)』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p. 999.

82) Anthony A.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종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p. 127.

83) Berkhof, 앞의 책, pp. 997-998; G. E. Ladd, *The Last Things: An Eschatology for Laymen*, 이승구 역, 『개혁주의 종말론 강의』 (서울: 이레서원, 2000), pp. 41-48.

84) 남성택, “카자흐민족의 민간신앙의 세계관 이해를 통한 변혁적 선교,” 박사학위논문, 주안대학원대학교, 2018, p. 109.

85) Гояховская, “Акмола губерниясы қазақтарының жерлеу салты,” *Әжіғали құраст., op. cit.*, 296.

86) G. I. Williamson, *The Shorter Catechism*, 최덕성 역, 『소교리문답강해』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p. 70.

87) Williamson, 『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서 강해』, pp. 94-97.

이웃을 보여준다. 성경은 죄 용서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분의 속죄의 결과임을 가르친다.

넷째, 전통적인 카자흐민족의 죽음이해와 관련하여 조상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 사별에서 오는 슬픔과 삶의 무의미함을 경감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로서 카자흐유목민 가운데 죽은 자가 산 자로서 후손들의 삶에 함께 한다는 이해가 형성되었다.⁸⁸⁾ 고인의 혼령은 ‘아루악’이라는 불멸의 존재로 화하여 가족과 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복을 주는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카자흐유목민들은 고대로부터 조상을 공경하여 고인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정해진 기일에 제사를 지내며, 병들거나 소원이 있을 때, 공동체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아루악’으로부터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조상은 후손들의 요청에 응답할 능력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죽은 자는 ‘살아있는 죽은 자’(the dead living)로서 후손들의 곁에, 그리고 그들의 기억에 남아 공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어왔다.⁸⁹⁾ 조상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고대로부터 카자흐유목민 사회에서 대대로 이어져왔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일곱 조상’(жеті ата)의 가계도에서 나타난다.⁹⁰⁾ ‘일곱 조상’을 안다는 것은 조상에 대한 공경의 표시이자 개인과 공동체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확인의 표시로 인식된다.⁹¹⁾ ‘일곱 조상’에 대한 공경심은 ‘아루악’을 위해 제물을 바치고 조상의 영묘를 신성화하고 그곳에서 종교적 제의들을 실천함으로써 표현된다. 이와 같은 종교적 실천들은 ‘아루악’의 신격화, 그것에 대한 신앙, 그리고 제의적 요소들이 실천된다는 점에서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겔 3:16-21).

결론적으로 카자흐민족의 장례문화와 그 속에 내포된 신념과 가치는 그것들이 형성된 역사적,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들의 장례 문화에는 인간을 향한 사랑과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덕목들이 발견된다. 하지만 카자흐민족의 죽음의 원인, 속죄, 영혼불멸사상, 내세관, 그리고 조상신 숭배 등의 사상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대조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이해들은 궁극적으로 ‘성경적’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V. 나가는 말

죽음은 인간의 모든 의미 체계에 도전한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커다란 현실인 죽음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고 사별에서 오는 고통을 경감하는 방안을 찾는다. 카자흐민족의 장례의식과 그에 따른 관습들은 죽음에 대한 고유한 신념들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선교에 있어 죽음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이므로 이에 대한 성경적 관점의 정립이 요청된다.

카자흐 무슬림들에게 있어 죽음은 단순히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88) Hiebert, Daniel and Tiéno, 앞의 책, p. 169.

89) 위의 책, p. 173.

90) 카자흐민족의 ‘일곱 조상’이란 나(Өз)-아버지(Әке)-할아버지(Ата)-증조부(Арғы ата)-고조부(Баба)-고증조부(Түп ата)-고고조부(Тек ата)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일곱 후손’은 아버지(Әке)-나(Бала)-손자(Немере)-증손자(Шөбере)-고손자(Шөпшек)-고증손자(Туажат)-고고손자(Жегжат)를 말한다.

http://www.ortalyk-kaz.kz/publ/tanym/zheti_atasyn_bilgen_er_zheti_ru_eldi_amyn_zher/23-1-0-970

(검색일: 2019년 12월 23일).

91) X. Арғынбаев, М. Мұқанов және В. Востров, *Ұлы жүздің шежіресі, Орта жүздің шежіресі, Кіші жүздің шежіресі* (Алматы: Атамұра баспасы, 2000), p. 5.

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전환일 뿐이다. 즉 이승의 수명이 다한 후 저 세상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런 이해는 고대로부터 카자흐인들 가운데 조상의 혼령인 ‘아루악’ 신앙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아루악’은 카자흐민족의 영혼불멸사상의 핵심을 이루며, 이 사상의 근원인 천신사상과 후대에 전래된 이슬람의 그것과 혼합되어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이해의 공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죽은 자가 산 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신념이 형성되었고, 그 신념들은 카자흐민족의 장례의식의 다양한 관습들의 실천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카자흐민족의 죽음이해와 내세에 대한 관점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죽음의 원인, 사후 상태, 부활, 그리고 심판 등의 주요 교리는 성경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접근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사상에 대한 일방적인 정죄나 거부 또는 무비판적인 수용의 태도를 지양하고, 장례문화와 그 의미들이 형성된 배경을 이해하되 성경의 진리로 검증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경적 관점으로 변형시켜 나가는 장기적이고 인내심을 요구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교의 목적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카자흐 교회와 신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장례문화와 죽음이해에 대한 적절한 신학적 안내를 위해 성경신학과 선교신학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Buturovic, Amila. *Carved in Stone, Etched in Memory: Death, Tomstones and Commemoration in Bosnian Islam since c. 1500*. New York: Routledge, 2016.
- Campo, Juan E. eds., *Encyclopedia of Islam*. New York: Facts on File, 2009.
- Leaman, Oliver. eds., *The Qur'an: An Encyclopedia*. New York: Routledge, 2006.
- Turner, Colin. *Islam: The Basics*. New York: Routledge, 2006.
- Арғынбаев, Х., Мұқанов М. және Востров, В. *Ұлы жүздің шежіресі, Орта жүздің шежіресі, Кіші жүздің шежіресі*. Алматы: Атамұра баспасы, 2000.
- Ай ып, Нүсіпоқасұлы және Әкімбаев, Жапарұлы. *Ағаш бесіктен жер бесікке дейін, Бата-тілектер, Той-мерекелер, Ажал-өлім туралы. бесінші кітап*. Алматы: Өнер баспасы, 2011.
- Әлімбаев, Н. Құраст. *Энциклопедия: Қазақтың этнографиялық категориялар, ұғымдар мен атауларының дәстүрлі жүйесі*. Алматы: DPS, 2011.
- Әлімқанова, Р. *Қазақ фольклорындағы антикалық сарындар*. Алматы: Арыс баспасы, 2009.
- Әжіғали, С. Е. *ҚАЗАҚ ХАЛҚЫНЫҢ ДӘСТҮРЛЕРІ МЕН ӘДЕТ-ҒҰРЫПТАРЫ. 1-ші том*. Алматы: Жазушы, 2005.
- _____. *Қазақ халқының дәстүрлерімен әдет-ғұрыптары, Дүниеге келгеннен өмірден озғанға дейін. 2-том*. Алматы: Арыс баспасы, 2006.
- Болатжан, Абылқасымов. *Телқоңыр*. Алматы: Атамұра, 1993.
- Сейіт, Каскабасов А. *Казахская волшебная сказка*. Алма-Ата: Өнер, 1972.

- Досмухамедов, Халел. *Аламан*. Алматы: Арыс, 1991.
- Дәуірхан, Ай даров Жәлиұлы. *Діл және дәстүр*. Алматы: Дай к-Пресс, 2010.
- Нұрсан, Әлібай. “Қазақтың өлікті жөнелтуге байланысты жосынжоралғыларының этномәдени проекциясы,” *Известия, сер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1, Алматы, 1994.
- Калиев С., Оразаев М., және Смайылова. *Қазақ халқының салт-дәстүрлері*. Алматы: Рауан, 1994..
- Әлижан, Тауұлы. *Қазақ салт-дәстүрлері*. Алматы: Балауса баспасы, 2017.
- Әлмұқанова, Р. *Қазақ фольклорындағы антикалық сарындар*. Алматы: Арыс баспасы, 2009.
- М., Мырзахметұлы. *Абай Лұғаты*. Алматы: Өнер-21 ғасыр қоғамдық қоры, 2014.
- Марғұлан, Ә. *Ежелгі жыр, аңыздар*. Алматы: Жазушы, 1985.
- Мұқашбеков, Ә. және Қаржымбай қызы, З. Қасымқызы, К., Құмарқызы, М., Рауанов С. және Күлиев, Е. *Жаратушыны әруақтар арқылы тану немесе Ак ананың тысым дүниелері*. Алматы: Дәуір, 2008.
- Уәлиханов, Ш. *Қазақтардағы шамандықтың қалдығы. 4-т.* Алматы: Алма-Ата, 1985.
- Berkhof, Louis,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하)』.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 Hiebert, Paul, Shaw, R. Daniel and Tiéno, Tite. *Understanding Folk Religion: A Christian Response to Popular Beliefs and Practices*, 문상철 역. 『민간종교이해』. 서울: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2006.
- Hoekema, Anthony A., *The Bible and the Futur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종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Johnstone, F. E. and H. Selby, *Anthropology: The Biocultural View*, 權彝九 編. 『現代文化人類學』. 서울: 探究堂, 1994.
- Ladd, G. E., *The Last Things: An Eschatology for Laymen*, 이승구 역. 『개혁주의 종말론 강의』. 서울: 이레서원, 2000.
- Williamson, G. I., *The Shorter Catechism*, 최덕성 역. 『소교리문답강해』.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4.
- _____.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for Study Class*, 나용화 역. 『웨스턴민스터신앙고백서 강해』.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6.
- 남성택, “카자흐민족의 민간신앙의 세계관 이해를 통한 변혁적 선교,” 박사학위논문, 주안대학교 (2018).
- 오원교, “중양아시아의 민족적, 지역적 소통과 상생의 토대로서 ‘생활 이슬람,’” 『아시아연구』, 제13권 제3호 (2010), pp. 165-205.
- 이란 · 현은자, “죽음 교육 자료로서의 그림책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신앙과 학문』, 제19권 제4호 (2014), pp. 135-167.
- 이성수, “이슬람이 중양아시아 전통문화에 끼친 영향: 중양아시아 토속신앙과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제1호 (2007), pp. 125-144.
- 이종원, “온전한 행복의 조건,” 『기독교사회윤리』, 제23집 (2012), pp. 53-82.

Ақеділ, Той шаңұлы. “АРУАҚ,” Абай -ақпарат, <http://www.abai.kz/post/11488>. 검색일: 2019년 12월 22일.

<http://www.kitaphana.kz/ru/downloads/referatu-na-kazak-skom/235-madeniettanu/4406-2012-05-24-06-36-10.html>, 검색일: 2019년 12월 20일.

Қай рат, Жолдыбай ұлы, “ЖАНАЗА НАМАЗЫ,”

<http://islam.kz/kk/articles/iman-alippesi/islam-sharttary/namaz-oqu/janaza-namazy-628/#gsc.tab=0>. 검색일: 2019년 12월 19일.

<http://en.noblequran.org/quran/surah-al-imran/ayat-185/>. 검색일: 2019년 12월 23일.

http://www.ortalyk-kaz.kz/publ/tanym/zheti_atasyn_bilgen_er_zheti_ru_eldi_amyn_zher/23-1-0-970. 검색일: 2019년 12월 23일.

http://www.perseus.tufts.edu/hopper/text?doc=Perseus%3Atext%3A2002.02.0006%3A_sura%3D50%3Averse%3D19. 검색일: 2019년 12월 23일.

인터뷰. 미으름잔. 2017년 7월 11일. 알마티 주 알메렉 영묘.

Abstract

Missionary Approach to Understanding of the Death of Traditional Kazakh People : Focusing on Funeral Culture and Its Custo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of missionary approach for Kazakh mission by understanding the perspective of death of traditional Kazakh nomads and illuminating it with biblical truth. All the procedures and customs of the traditional Kazakh nomadic funeral are focused on satisfying the ancestor god *Aruakh*. The understanding of death in the Kazakh funeral culture and its customs are not in harmony with the Bible's teaching, which is a missionary task to be solved for the Kazakh church and Christians. In this regard, the researcher introduces the traditional Kazakh nomadic funeral culture and its customs, and suggests the Kazakh's perspective of death by understanding the meanings of each elements, and seeks for the possibility of missionary approach by illuminating it with the truth of the Bible.

In the Central Asian region, indigenous folk religions such as Tengrism, ancestor worship, and Saint worship have been practiced before the propagation of Islam. Central Asian Islam, represented by Sufism, has been widely spread to Kazakh nomadic societies, mainly in southern Kazakhstan, accepting the rituals and ideas of traditional indigenous folk religions. Although the Kazakh were in the

sphere of Islamic influence, almost all of them were nominal Muslims, and their faith was a mixture of traditional folk religion and Islam. From ancient times to the contemporary, the Kazakh people's religious practices consist of elements of traditional folk religions in the form of Islam. Thus, as with the main themes of religious practice, the Kazakh people's understanding of death was also influenced by the Syncretism of the traditional shamanism and Islamic thoughts.

The traditional Kazakh nomadic funeral culture and its customs reflect the Kazakh's understanding of the death. For Kazakh Muslims, death is not merely a separation of souls from the body, but a transition from one world to another. In other words, it is to move to the life of that world after the life of this world is over. Such understanding was the basis for shaping faith in the *Aruakh*, the ancestral soul(zhan-ruh), among the Kazakhs since ancient times. *Aruakh* forms the core of the Kazakh people's immortality of soul, and makes the basis of understanding that man does not die by mixing with the Tengrism, the origin of immortality of soul, and that of Islam which was later introduced. From such a view of death and afterlife, the belief that the dead have a lasting relationship with the living in the afterlife has been formed, and this belief system is manifested through the practice of customs for the satisfaction of the dead, the core of the Kazakh people's funeral rituals.

As discussed above, it is confirmed that the Kazakh people's view of death and the afterlife are far from the teachings of the Bible. The main doctrines of cause of death, state after death, resurrection, and judgment were examined in disharmony with Bible truth. Nevertheless, the missionary approach to the Kazakh people's understanding of death must be taken carefully. It is necessary to avoid one-sided condemnation or uncritical acceptance of their ideas, and to transform them into a biblical perspective by understanding their funeral culture and the context in which they are formed, and by examining and critiquing them with the truth of the Bible. This requires a long term and patience. Only when the Kazakh people's understanding of death is illuminated by biblical truth and transformed into the biblical perspective, the purpose of mission will be achieved.

Keywords: Kazakh People, Funeral Culture and Its Customs, Syncretism, Understanding of Death, 'Aruakh,' Folk Religion, Islam, Biblical Perspective